Linguistic Research 26(2), 1-14

주제(Topic)와 주어(Subject):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

김영국
(한국성서대학교)

Kim, Youngkook. 2009. Topic and Subject in English. *Linguistic Research* 26(2), 1-14. The Korean language uses a strategy of topicalization. The topic in Korean appears in the topic position with a particle '-un/nun.' It always appears clause-initially, or before the subject position. Then what happens to English? Does it have a topic? In this paper, I argue that English also has topical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s that in Korean the topic occurs in overt syntactic movement using the particle '-un/nun' while in English it occurs in covert syntactic movement. In English, a topic does not move to the topic position, or before the subject position, syntactically. If an element in a sentence is a topic, it moves to the left of the subject, or the topic position covertly, not overtly. It means that the Korean topic is realized in overt movement while the English topic in covert movement. **(Korean Bible University)**

Key Words topic, subject, movement, syntax, topicalzation, (c)overt movement

1. 서론

Li & Thompson (1976)은 분류언어학 측면에서 언어를 문장 구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주어(subject)-술어(predicate) 구조 언어, 둘째, 주제(topic)-화제(comment) 언어, 셋째,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두 가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 넷째, 주어-술어, 주제-화제 어느 쪽 구조도 없는 언어가 있다. 영어를 포함하는 인구어(인도-유럽어)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고, 중국어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세 번째 구조의 언어이다. 필리핀의 토착어인 Tagalog는 네 번째 유형에 속하는 언어이다. 이는 문장 요소들의 문법관계(grammatical relation)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나온 주장이다. 그럼 먼저 무엇이 주어-술어 문장 구조이고, 무엇이 주제-화제 문장 구조인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예문들은 모두 Li and Thompson(1976)에서 온 것이다.

* 본 논문은 2009년 5월 30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개최 되었던 대한 언어학회, 현대 문법학회, 한국 생성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봄 언어학 공동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학술 대회에서 여러 가지 comment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귀한 견해를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 John hit Mary.
주어 술어

(2) As for education[1], John prefers Bertrand Russel's ideas.
주제 화제

주어-술어 문장 구조는 (1)과 비슷하고, (2)의 구조는 세 번째 구조로서 주제-화제 구조 안에 주어-술어 구조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이다. 다음은 한국어의 예이다.

(3) a. 입시교육은 철수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주제 화제
b. 입시교육은 철수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주어 술어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문장 전체와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 화제라는 문장 안에서 주어와 술어가 연결되어 있다. 주제는 문장(화제) 밖에 위치하면서 문장 전체와 어떤 정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주어는 문장 안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술어와 문법관계를 맺고 있다.

2. 주어와 주제의 차이

아래 두 문장의 차이점은 (4)의 경우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라는 의미이다. 주어의 지시대상(reference)이 서술부에 의해 정해진다. 반면에 (5)의 경우 주어의 지시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청자나 화자나 모두 '그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키가 제일 크다'는 정보가 덧붙여지고 있다. 즉, (4)의 '그 남자'는 주어(subject)[2]이고 (5)의 '그 남자'는 주제(topic)이다.

---

1) (2)구문이 left-dislocation인지 topicalization 인지 구분해야하는 지적이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있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만약에 (2)의 education이 left-dislocation이라면 반드시 오른쪽 문장 안에 같은 뜻의 대명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i) *John*, I think *he* is the pits.(Radford, 1988)

(i)의 경우 left-dislocation의 경우로 John의 원래 자리에 John 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he가 있다. 그러나 (2)번과 같은 topicalization의 경우는 오른쪽 문장 안에 꼭 대명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2) 만약에 술어에 속한 '키'가 문법적 주어라고 한다면, 이는 이중 주어의 문제에 속한다. 즉, 문법 주어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오는 셈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Kim (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그 남자가 키가 제일 크다.
(5) 그 남자는 키가 제일 크다.

한국어의 주제와 주어의 차이점을 또 살펴보자.

(6) a. 철수가 보았다.
b. 영수가 아니라 철수가 보았다.
(7) a. 철수는 보았다.
b. * 영수는 아니라 철수는 보았다.

한국어에서 조사 '이/가'가 붙는 주어는 대조 강조(contrastive focus)를 받을 수 있지만, '은/는'이 붙는 주제는 대조 강세 해석이 불가능하다(Yoon 1990, Moon 1987). 주어는 술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주제는 그렇지 못하다. 즉, 술어의 수식에 의해 주어의 지시대상은 결정되지만 주제는 그렇지 않다. 주제는 술어와 관계없이 이미 그 지시 대상이 결정[3]되어 있다. 반면에 주어의 지시 대상 범위는 술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Chafe(1976)가 말하는 주어와 주제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주제'(topic)란 어떤 명사구를 말하는데, 그 명사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지시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청자나 화자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장 전체(sentence)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해 덧붙여지는 정보(new information; comment)인 것이다. 또한 Chafe는 주어와 주제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주제는 반드시 한정적이고 명확[4]해야 하며 청자나 화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구정보(old information)이다.

(8) 그 차는 너무나 오래되고 기름이 많이 먹는다.
주제

반면에 주어(subject)는 한정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없다. 영어의 한 예를 보자.

(9) A couple of people have arrived.
(10) A piece of pie is on the table.

둘째, 주제는 동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선택적 관계(thematic relation or selectional

3) 아마도 청자와 화자 사이에 대화 상황 속에서 이미 서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주제로 삼고 대화를 한다고 본다.
4) 영어로 definit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Chafe는 이 definiteness 개념 안에 고유명사(proper noun)나 generic NPs도 포함시키고 있다.

relation)가 있을 필요가 없다. 즉, 아래 (11a)에서 보듯이, 주제는 술어의 논항(argument)일 필요가 없다. 물론 술어의 논항이 나중에 주제가 될 수는 있다(11b). 그러나 주제와 술어가 꼭 논항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11) a. 입시교육은 [S 철수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b. 정보는 [S 철수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c. [S 철수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11a)번에서 술어(동사)인 '가지고 있다'와 논항 관계는 주어(subject)인 '철수'와 목적어(object)인 '정보' 사이에만 존재한다. '입시교육'이라는 명사는 동사인 '가지고 있다'와 아무런 문법적, 논항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문장 전체와 어떤 의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11b)처럼 명사구가 먼저 문장 안에서 동사와 논항 관계(theme)를 맺은 다음에 주제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정보'는 (11c)처럼 문장 안(sentence)에서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형성한 다음, 주제(topic)화가 되어 나중에 주제의 위치, 즉, 문장 밖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어는 반드시 술어(동사)와 논항의 관계를 갖고 문장 안에 위치해야한다. 위 (1)의 John은 동사 hit와, (11a)의 '철수'는 동사 '가지고 있다'와 논항관계를 맺고 있다. (5)의 '그 남자'는 주어이면서 주제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술어는 주어를 결정하고 관할하지만 주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주제는 문장 전체와 정보관계[5]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3. 제한적 관계절과 비 제한적 관계절의 구조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12) 그 키가 큰 여자 (the woman who is tall)
(13) 키가 큰 그 여자 (the woman, who is tall)[6]

한국어의 경우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은,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사(그, the)의 범위(scope) 안에 나타나지만, 비제한적 관계절(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경우, (13)에서처럼, 관계절은 관사 밖에 위치한다. 그러나 영어 경우 제한적, 비제한적 관계절의 순서에 차이가 없다. 단지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중심명사(the woman)와 관계절(who is tall) 사이에 쉼표(,)가 나와서 단절 시키고 있을 뿐이다. 제한적 관계절은 중심명사(head noun)의 범위를 제한(restrict or limit)시키지만, 비제한절은 그 중심 명사의

5) 주제와 주어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afe(1976)나 Li and Thompson(1976)를 참조하시오.
6) 익명의 심사위원이 (13)도 제한적 관계절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범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제한절은 선행사의 범위(identity)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정보만을 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제한절의 경우에는 중심 명사의 범위를 제한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한국의 경우에는 통사적으로 보여준다. (12)과 같은 제한절의 경우 관계절이 관사와 중심 명사 사이에 위치하여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고 있다. 반면에 비제한절의 경우 통사적으로 관사 밖으로 위치하여 중심 명사(그 여자; the woman)의 범위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Kim(1997), Bak(1981)).

관계절의 제한성(restrictiveness)에 관해 Bowers(197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영어 예문을 살펴보자.

(14) a. The Chinese who are industrious dominate the economy.
b. The Chinese, who are industrious, dominate the economy.

(14a)의 관계절은 제한적이고, (14b)의 관계절은 비제한적이다. (14a)에서 중국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부지런한 중국인'도 있고, '게으른 중국인'도 있다. 그 중에서 '부지런한 중국인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관계절 '부지런한'은 명사 '중국인'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있다. (14a)의 관계절은 선행 명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해주고 제한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반면에 (14b)에서 중국인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들은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즉, '부지런한'이라는 관계절이 (14b)에서는 선행사 중국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덧붙여 주고 있을 뿐이다.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의 지시대상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데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다.

관계절이 (14a)에서처럼 중심명사(선행사)의 존재나 범위를 확인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한정성(restrictiveness)을 가지는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이라고 하고, (14b)처럼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중심명사의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면 비한정적 관계절이라고 한다(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7].

어순의 입장에서 보면 영어의 경우 제한적 관계절이든, 비제한적 관계절이든 어떠한 차이

7) Comrie(1989)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The restrictive clause serves to delimit the potential referents of the man, in *'the man that I saw yesterday left this morning'*.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sentence the man left this morning does not provide the hearer with sufficient information to identify the man in question (the hearer would probably have to ask *which man*), so th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 saw yesterday'* is added to indicate specifically which man is being talked about.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are illustrated by the following examples: *the man, who had arrived yesterday left this morning.* In this sentence, the speaker seems to assume that the hearer can identify which man is being talked about, and that it is one particular, identifiable *'man'* that is being talked about; the relative clause serves merely to give the hearer an added piece of information about an already identified entity, but not to identify that entity."

도 없다. 그러나 의미적 입장에서 보면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서로 다른 의미 해석 구조를 가져야한다 (Kayne[8] (1994)).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는 (12)과 (13)에서 보았듯이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가 통사부에서 어순으로 나타난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9]. 결국 관계절의 위치와 해석에 관해서 한국어는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관사와 중심명사 사이에 위치하고,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관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통사부에서는 제한적 관계절이든 비제한적 관계절이든 '관사+중심명사+관계절'의 순서이다. 그러나 Kim(1997)에 따르면, 의미부(LF)에서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관사 앞의 관사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10]해야 한다는 것이다[11]. 그렇다면 (14b)의 의미구조는 다음 (16)과 같다.

(15) 통사부 구조: The Chinese, [who are industrious]
(16) 의미부(LF) 구조: [who are industrious] the Chinese

그리고 Kim(1997)은 제한적 관계절은 음운론적으로 focus(stress)를 받는 반면에 비제한적 관계절은 focus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주제(topic)와 환제(comment; focus)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명사의 지시 대상을 정하는데 역할을 하면 관계절은 stress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명사의 지시 대상의 한계를 정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관계절은 stress를 받지 못한다. 즉, 청자에게 중심명사의 지시 대상을 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제한적 관계절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stress를 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비제한적 관계절은 stress를 받지 못한다. 문장의 경우도 청자에게 중요한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를 주는 요소(element)인 경우 stress를 받는 반면에, 이미 청자도 알고 있는 구정보(old information)의 경우 어떠한 stress를 받지 않는다. 다음 문장의 stress를 받는 단어를 살펴보자. 굵은 글씨체와 이태리체로 되어 있는 단어가 문장의 stress를 받고 있다.

(17) a.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

8) Kayne (1994)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Even though the restrictive relative clause and the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have the same word order, the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 moves to the pre-determiner position in LF to receive a proper interpretation while the restrictive relative clause remains in situ."

9) 일본의 예를 Kim(1997)은 영어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a. Ano [watashi-ga katta] hon
that I-subject bought book
'that book I bought'
b. [watashi-ga katta] ano hon
I-subject bought that book

10) 어순은 '[$_{DP}$ [$_{Spec}$ 관계절] [D] [NP]]'이다.

11) 영어의 관계절의 경우 관사를 중심으로 제한적 관계절과 비 제한적 관계절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b.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18) a. ***Someone*** bought a sweater.
b. The book is ***very expensive***.

(17a)의 경우 '철수'가 stress를 받는다. 반면에 (17b)에서 '철수'는 stress를 받을 수 없다. (18b)의 경우 'very expensive'가 (18a)의 경우 'someone'이 각각 stress를 받는다. 주제(topic)의 개념[12]에서 보자면, 주제는 이미 청자나 화자나 알고 있는 구정보[13]이므로 stress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17b)의 주제인 '철수'는 stress를 받지 못하고, (18b)의 주제인 'the book'도 stress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화자 청자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이다. 반면에 (17a)의 '철수'나 (18a)의 'someone'는 신정보로서 stress를 받고 있다.

4. 주제와 주어의 위치

다음 네 문장을 살펴보자.

(19) [S 철수가[14] 영희를 사랑한다].
(20) 철수는 [S 영희를 사랑한다].
(21) 영희는 [S 철수가 사랑한다].
(22)* 영희는 철수는 [S 사랑한다].

(19)는 '주어+술어'관계의 문장이고, (20)는 '철수'라는 주제가 나오는 경우이다. (21)의 경우, 문법적으로 목적어(object)에 해당하는 '영희'라는 주제가 있는 문장이다. (21)의 '영희는' 문장의 주어가 명백히 아니다. 이미 문장의 주어인 '철수'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21)의 '영희'는 주제라고 한다. Yang(1972)과 Kuno(1972)에 따르면, 문법적 역할이 무엇이든지 어떤 명사가 조사 '-은/는'을 가지고 있으면 주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제는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문장 속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밖에 나타나야한다. Chafe(1976)는 주제와 문장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제는 술어(동사)가 가지는(미치는)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그리고

---

12) Halliday(1970)에 따르면 담화의 구성에서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내는 표현(단어)은 가능하면 문장 앞쪽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구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는 앞 대화에서 이미 나왔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청자 입장에서 문장 앞부분에 그 구정보를 다시 언급하면 쉽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3) 물론 대조의 주제(contrastive topic)를 나타내는 경우 stress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희는 아니더라도 **철수는** 상을 받을 것이다.'의 경우 주제를 나타내는 '철수'라는 명사가 stress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대조의 주제 '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Kim(1997)과 (Yang1972)를 보시오.

14) 익명의 심사위원이 주격조사도 주제 해석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개인적(individual)인 틀(영역, 범위; framework)을 설정해준다. 따라서 주제는 이 틀(framework) 밖에 위치해야한다. 반면에 주어는 술어(동사)의 틀 안에서 문장의 다른 요소들, 즉 주어, 목적어, 보어 등과 논항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술어의 범위안의 틀은 문장(sentenc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topic)는 문장 밖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15]. 그래서 (22)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의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오면 아주 어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어-술어 구조를 가진 영어의 경우 주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며 주제의 해석을 갖는 명사구는 어떤 위치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The car is very expensive.
(24) As for the car, it is very expensive.
(25) The car$_i$ [$_S$ t$_i$ is very expensive].
(26) Someone bought a sweater.
(27) * As for someone, he/she bought a sweater.
(28) * Someone$_i$ [$_S$ t$_i$ bought a sweater].

만약 (23)의 'the car'[16]가 (24)에서처럼 주제(topic)로 해석 된다면, 통사적으로는 주어(subject)자리에 있지만, 의미부(LF)[17]에서는 반드시 주제자리(즉, 문장 밖)에 나타나야한다 (25). 왜냐하면 'the car'는 그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청자나 화자 둘 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the car'라는 명사는 주제(topic)의 의미해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부(LF)에서는 반드시 주제자리(즉, 문장 밖)로 이동해야 한다.

---

15) Halliday(1970)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정보인 주제는 가능하면 문장에서 앞쪽에 나타나야 한다.

16) 익명의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덧붙였다.

(i) John bought the car.
(ii) The car, John bought.
(iii) As for the car, John bought it.
(iv) It is the car that John bought.
(v) What John bought is the car.

위 (ii)-(v)까지 예문을 살펴보면 (i)의 the car는 주제의 해석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제의 해석이 불가능한 다음 예문도 참조하기 바란다.

(vi) John bought a car.
(vii) * A car, John bought.
(viii) * As for a car, John bought it.

17) 의미부(LF)의 개념은 여기서 생략한다. 그 개념의 자세한 설명은 Chomsky(1981)이나 Radford(1988)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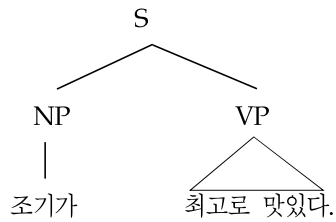
반면에, (26)의 'someone'은 절대로 주제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27)와 같은 주제의 해석은 비문을 초래한다. 따라서 someone은 의미부에서 (28)처럼 문장 밖으로 이동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는 영어의 경우 통사부에서는 주제나 주어 모두 주어(subject) 위치에 오지만((23)과 (26)), 의미부에서는 주제의 해석을 받게 되면 반드시 (25)처럼 문장 밖의 주제 자리로 한국어처럼 이동해야한다. 반면에 (26)의 진짜 주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제는 전체 문장(S) 밖에 위치해야 하고, 주어는 문장 속에 위치해야 한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보자.

(29) 생선은 [S 조기가 최고로 맛있다].
주제 화제

(29)에서 '조기가 최고로 맛있다'는 화제(comment)로서 완전한 문장이다. 여기에 '생선'이 덧붙여 (29)의 문장을 만들고 있다[18]. (29)번의 화제에 해당하는 문장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면 '생선'은 문장 밖에 위치해야 한다.

(30)



위 (29)번 문장에서 '생선'은 주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29)번 문장의 의미는 '생선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기가 가장 맛있다.'라는 뜻이다. 같은 주제가 들어있는 (21)과 (29)의 차이는 (21)의 경우 목적어인 '영희'가 문장 안에서 위치해 있다가, 주제(topic)가 되면서 문장 밖(주어 앞)으로 이동한 경우이고, (29)의 경우는 이동이 없이 심층 구조(deep structure)에서부터 주제인 '생선'이 기저생성[19](base-generate)된 경우이다. 어쨌든 주제에 해당하는 '생선'이라는 단어는 표층 구조에서 문장 밖 주어 왼쪽에 나타나고 있다. (29)에서 '생선'이라

18) 물론 덧붙여지는 주제는 나머지 문장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음식은/*철수는/*바다는/*책상은 조기가 최고로 맛있다.

19) 물론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9)의 '생선'이라는 주제는 의미역(theta-role)이 문장의 술어로부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deep-structure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형 도중에 삽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의 관심사는 '주제'(topic)의 통사구조(혹은 표층구조)에서의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기저 생성'이냐 '변형도중의 삽입'이냐의 논쟁을 피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김영국(1997)을 보라.

는 것은 '조기가 최고로 맛있다'라는 문장의 밖에 위치해 있다. 다음을 보자.

(31) a. 생선은 [S 과거에는 조기가 최고로 맛있었다]
b. 생선은 [S 현재 조기가 최고 인기 있다]
c. 생선은 [S 앞으로도 조기가 최고로 인기 있을 것이다]

(31)의 세 문장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생선'은 뒤의 문장이 어떤 시제가 와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 뒤의 문장과 단절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제어인 '생선'은 문장(sentence)밖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지만, 주제는 문장의 범위 밖에 있어야 한다[20].

그렇다면 영어경우도 마찬가지이다. Topicalised Sentence의 경우를 보자. Emonds(1976, p.31)는 다음을 topicalization에 의한 명사구(NP) 이동을 한 문장들이라고 주장한다.

(32) a. These steps [S I used to sweep _____ with a broom]
b. Each part [S John examined ____ carefully]
c. Our daughters [S we are proud of _____]
d. Poetry [S we try not to memorize _____]

Radford(1988)는 주제화된 이동 명사구(topicalized NP)는 문장 밖 보문소의 지정어(Specifier position of complementizer)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다. 위 경우에도 주제(topic)화된 영어 단어는 모두 주어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어든 한국어든 주제어(topic word)는 문장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영어의 경우[21] 통사적으로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주제어(topic word)도 최소한 의미구조(LF)에서는 문장 밖 주제 자리로 이동[22]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영어 (25)와 같은 문장에서 만약에 'the

---

20) 물론 주제와 나머지 문장과는 밀접한 의미관계가 있어야 한다.

21) 영어 dislocation (특히 left-dislocation)의 경우, 이동(movement) 없는 한국어의 topic (위 예문(31) 참조)과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통사부에서 topic 이 있는 문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문은 Radford(1988, p.530-p.531)에서 온 것임).

a. *John,* I think *he* is the pits.
b. I think *he* is the pits, *John.*
c. *John,* I can't stand *the arrogant bastard.*
d. *Me,* everyone knows *I* can't stand weirdos.

22) 여기서 이동은 Chomsky (1995) 의 자질에 따른 이동으로 본다. 즉, 만약 어휘부에서 어떤 어휘범주가 주제라는 자질을 가지고 나오면 이 요소는 반드시 통사부에서든 의미부에서든 해석되어야 한다. 이 해석들 받기 위해서 문장 밖의 어떤 자리, 예를 들면 [Spec, CP] 혹은 [Spec, TP]로 이동해야한다. 이동 위치에 대한 논의는 김영국(1997)를 보라.

car'가 주제(topic)의 의미해석을 받는다면 의미부(LF)에서 문장 밖으로 이동해야한다.

(33) a. Syntax: [$_S$ The car is very expensive]
b. LF: the car$_i$ [$_S$ t$_i$ is very expensive]
'Speaking of the car, it is very expensive.'

위와 같은 이동은 영어 주어가 의문사일 경우의 이동과 유사하다.

(34) a. Syntax: Who bought the car?
b. Syntax: Who$_i$ [$_S$ t$_i$ bought the car]?
c. LF: x [$_S$ x bought the car]
(35) a. Syntax: what did [S you buy t]?
b. LF: x [$_S$ you bought x]

(34)의 경우 who라는 의문사는 최소한 의미부에서 문장 밖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who는 문장의 범위 밖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34a)도 이미 통사부에서 (35)의 what처럼 문장 밖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34b). 영어의 경우 의문사는 최소한 의미부에서 문장 밖으로 이동이 분명하다. 영어의 주제(topic)도 문장안의 어느 한 요소라기보다 문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문장밖에 위치해야 한다. 영어의 (33b)에서 'the car'가 주제의 해석을 받는다면, 의미부에서(LF)에서 문장 밖으로 이동이 있어야 바른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the car가 (36)번처럼 focus를 받아 stress를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the car는 주제가 아니라 주어[23]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뒤의 술부가 주어의 지시대상의 영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36a)는 (36b)의 해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36) a. ***The car*** is very expensive.
b. It is ***the car*** that is very expensive.

즉, '매우 비싼 것은 이 차도 아니고 저 차도 아니고 바로 그 차다.'라는 해석을 갖는다. 이런 경우 'the car'는 주제(topic)의 해석이 아니고 새 정보(new information)를 갖는 주어(subject)의 해석을 받는다. 그렇다면 'the car'는 문장 밖에 위치하며 문장 전체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문장 안에서 술어인 'is very expensive'로 인해 지시 대상을 제한받고 있다. 만약에 the car가 문장 안에서 술어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면 the car는 반드시 주어(subject)이고 문장 안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36)의 the car는 주제(topic)가 아니라 주어

23) 즉, 여기서 the car는 focus를 받고 있다.

(subject)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the car가 통사부든 의미부이든 문장 밖에 위치할 수가 없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술부가 주부[24]의 지시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확인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 주부는 주어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주부는 주제가 된다. 관계절의 경우, 관계절이 중심명사의 지시대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역할을 하면 제한적 관계절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제한적 관계절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어-술어의 경우 주어는 술어 범위(문장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하고, 주제의 경우 술어(문장) 범위 밖에 위치해야 한다. 관계절의 경우 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관사 범위 안에 위치해야하고, 비제한적 관계절의 경우 관사 범위 밖에 위치해야한다. 문장 내에서 어떠한 요소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주제화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주제화가 되면, 즉, 문장의 나머지가 그 주제화된 요소에 지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을 주지 못하면, 그 요소는 문장 범위 밖에 위치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주제화된 요소가 통사적(overt movement)으로 문장 밖에 위치해야 하고, 영어의 경우는 의미부(covert movement)[25]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주제의 해석을 받는 요소는 최소한 의미부에서라도 반드시 주제 자리인 문장 밖에 위치하거나 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한국어의 경우 주제가 통사부에서 위치하거나 이동하고, 영어의 경우 주제화 해석이 의미부에서 일어난다.

5. 결론

관계절이 중심명사의 지시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관계절은 제한적 해석을 얻게 되어 관사 범위 안에 있어야 하듯이, 문장에서 술어가 주부의 지시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 하면 주어의 해석을 갖게 되며 문장 안에 위치해야 한다. 반면에, 관계절이 중심명사의 지시대상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비제한적 해석을 하게 되며 관사 영역 밖으로 위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 술어가 주부의 지시대상을 정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주부는 주제의 해석을 얻게 되어 문장 밖으로 위치해야 한다. 물론 그 주제는 이동에 의해서 문장 밖에 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동 없이 문장 밖에서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문장 내 주어가 아닌 어떤 요소(목적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주제화[26]가 되어도 그 요소는 반드시 문장밖에 위치해야 한다. 영어와 한국

---

24) 주부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어진 명사구(NP)가 아직 주어로 사용될지 주제로 사용될지 아직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이다.

25) 물론 영어도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topicalization 이나 dislocation 현상의 그런 경우에 속한다.

26) 한국어: 철수는, 영희가 너무나 좋아한다.
어제는, 비가 억수로 내렸다.
강남에는, 아파트가 너무나 비싸다.
영어: Mary loves John so much. --> John, Mary loves so much.

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영어의 경우, 주제가 통사부에서는 문장 내에 위치하다가[27], 의미부에서 주제 자리로(즉, 문장 밖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주제는 통사부이든, 의미부이든 항상 문장 밖에 나타나야 한다.

참고 문헌

Bak, Sung.-Yun. 1981. *Studies in Korean Syntax: Ellipsis, Topic and Relative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Bowers, J. 1974. On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 Ms., Cornell university.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 and points of view, In *Subject and Topic*, Edited by Charles Li, Academic Press, New York.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Blackwell, Oxford.

Emonds, J.E. 1970. *Root and Structure-Preserving Transformations*, mimeographed paper circula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Emonds, J.E.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Academic Press, New York.

Halliday, M.A.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New horizons in Linguistics*, edited by Lyon, John Penguin, London.

Li, C. and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Subject and Topic*, Edited by Charles Li, Academic Press, New York.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MIT press, Cambridge, Mass.

Kim, Young Kook. 1997. Movement and Feature-Checking in Korean: Relative Clauses, Topicalization, and Case-mark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UCL).

Kuno, Susumo. 1972. Pronominalization and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

Moon, Gui-Sun. 1987. The distribution of pro in Korean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M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In English, Korean and Turk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Yesterday, it rained too much.

In Kangnam, the price of apartments is so high.

27) 영어의 경우 통사부에서는 주제화가 일어날 수 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주제화 현상이 반드시 통사적으로 일어나야한다. 이는 wh-의문문을 만들 때, 영어의 경우는 통사적으로 필수적인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선택적인 현상과 비슷하다.

Yoon, Jong-Yurl.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김영국
한국 성서대학교 교양학부(영어)
139-791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205번지
Tel: 02) 950-5525
Email: kimykoo@hanmail.net

접수일자: 2009. 06. 30
수정일자: 2009. 08. 12
게재일자: 2009. 08. 28